

모의고사 지문 분석

이 감 망

부록

2023학년도 시준6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양명학의 주자학 비판 및 조선의 사단 칠정 논쟁

지문 평가

(가)에서는 양명학이 주자학의 규범적 형식주의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함을, (나)에서는 사단 칠정 논쟁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함의를 살피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이황', '기대승', '이이'의 관점이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틀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를 뜯어볼수록 배울 점이 많은, 자신이 글을 온전히 읽어 내고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좋은 지문이다.

Keyword

(가) 인문 - 동양 철학 - 양명학

주자학, 왕수인, 양명학, 규범적 형식주의, 이, 격물, 함양, 양지, 치양지, 미발, 이발, 성, 정, 중절, 칠정, 확충, 사단

(나) 인문 - 동양 철학 - 사단 칠정

사림파, 사단 칠정 논쟁, 이황, 기대승, 이이, 수신, 훈구파, 기묘사화, 출사

(가) 문단 1 주자학의 폐단과 양명학의 등장

1) 중국 송나라 때에 주자의 경전 주석은 실천의 지침이자 과거 시험의 표준이 되었고 **주자학**은 관학[→ 국가의 공식적인 학문]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명나라에 와서 지식인과 관료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안이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임에도 주자학은 관학으로 기능할 뿐 성인지학(聖人之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 '주자학이 관학으로 자리 잡았다'는 말은 모든 지식인과 관료들이 이를 기준으로 삼아 공부했다는 뜻이다.

▶ 그런데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 안이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주자학이 더 이상 '실천의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성인지학'의 의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2) 이를 문제로 인식한 **왕수인**은 모든 이가 학문을 할 필요도 없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양심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양명학**을 통해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맥락 짚기** ▶ '왕수인'이 제안한 해결 방안인 '양명학'이 제시되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을 어떻게 '양명학'이 해결할 수 있을지를 독해의 초점으로 두고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문단 2 도덕적 실천을 중시한 양명학

1) 왕수인은 주자학이 개인의 자각보다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객관적 규범**을 우위에 둬으로써 **도덕적 실천**을 약화시키는 **규범적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보았다.

▶ 왕수인에 따르면 주자학이 '규범적 형식주의'에 빠짐으로써 도덕적 실천이 약화된 것이 문제 원인이다. 그에 따라 주자학은 더 이상 '실천의 지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 그는 보편적 원리인 **'이(理)'**를 터득하는 **격물(格物)**을 할 때에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를 지각하여 깨우치려 한 것이 아니라, **만물**에 나아가거나 경전을 통해 궁구하려 한 데에서 이런 폐단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 주자학이 규범적 형식주의에 빠진 이유에 대한 분석이다. '격물'을 통해 '이

를 깨우칠 때 내면에 놓인 '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 놓인 '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3) 주자학은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람들을 출세를 위한 경전 공부로만 내몰아, 결과적으로 내면의 덕성을 키우는 **함양(涵養)**을 외면하게 하고 도덕적 실천을 등한시하도록 하였다 는 것이다.

▶ 규범적 형식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주자의 경전 주석'은 실천의 지침이자 과거 시험의 표준인데, 그중 '과거 시험의 표준'이라는 점만 강조된 것이다.

▶ 이렇듯 주자학은 주자의 경전 주석에만 매달렸기 때문에 학문, 객관적 규범을 익히는 것에 머물러서 결국 '도덕적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여기서 '함양'은 '도덕적 실천'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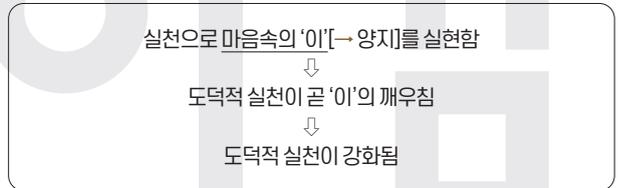
▶ **주목** ▶ 다만 주자학이 그 자체로 도덕적 실천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는 명분'은 '실천'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경전 공부를 통해 아는 것'을 우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천'이 등한시된 것이다.

4) 왕수인은 만물의 이치를 포함한 **도덕 원리인 '양지(良知)'**가 마음에 들어 있다고 보고 실천으로 양지를 실현하는 일인 **'치양지'**를 강조함으로써 마음의 깨우침이 곧 도덕적 실천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맥락 짚기** ▶ 앞선 설명을 통해 문제 상황과 문제 원인을 이해했다면, 여기서부터는 해결 방안으로서의 '양명학'을 설명하고 있다.

▶ '양지'는 '만물의 이치'를 포함한 것이다. 주자학에서 말하는 '이' 중에서도 '마음에 이미 주어져 있는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 '치양지'는 도덕적 실천으로 그러한 양지를 실현하는 일로서, 주자학이 말하는 '격물'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격물의 경우 '외면의 이를 깨우치는 것'이라면, 치양지는 '내면의 이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주목** ▶ '치양지'의 정의에 따르면 양지를 실현하는 일은 곧 실천이다. 즉 주자학에서는 알아야 실천할 수 있음이 강조된다면, 양명학에서는 아는 것이 곧 실천임이 강조된다.

(가) 문단 3 주자학의 중절, 양명학의 양지 확충

1) 주자학 역시 마음의 작용에 대해 궁구하고 수양을 강조하지만 이는 양명학의 경우와 다르다. 주자학에 따르면 외물의 자극을 받지 않아 미쳐 발(發)하지 않은 **미발(未發)** 시와 이미 발한 **이발(已發)** 시의 마음은 각각 **'성(性)'**과 **'정(情)'**으로 구분된다.

▶ 주자학에서는 마음을 '외물의 자극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외물의 자극'은 '만물에 나아가거나 경전을 통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문단2-2].

2) 그리고 수양과 관련하여 미발 시에는 선한 본성인 '성'을 함양해야 하나, 이발 시에는 '정'을 성찰해야 한다. 그래야 '정'이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는 상태인 **중절(中節)**을 달성할 수 있다. 희로애락 등 일곱 가지 사사로운 감정인 **칠정(七情)**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부중절(不中節)**의 상태로 발하면 악이 된다.

▶ 먼저 외물의 자극을 받지 않은 '미발 시의 마음'에 대해서는 함양이 필요하다. 이때의 마음인 '성'은 '선한 본성'으로 설명된다. 이는 마음속에 이미 '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문단2-2].

▶ 외물의 자극을 받은 '이발 시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때의 '성찰'은 부중절의 상태를 중절의 상태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야만 마음이 발한 결과인 '칠정'이 악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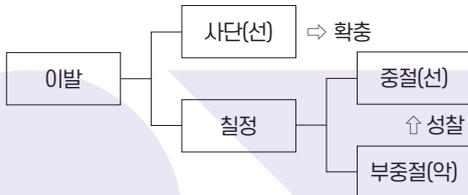
미발 시의 마음[→ '성'] ⇒ 함양
 이발 시의 마음[→ '정'] ⇒ 성찰

3) 이와 달리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를 이발과 미발로 나눌 수 없다고 보았다. 언제나 마음에 현존하는 양지를 확충하는 일만이 중요한 것이다.

- ▶ 주자학은 미발과 이발로 마음을 나누고 함양을 미발 시의 수양으로 국한한 반면, 왕수인은 마음이 발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 ▶ 왕수인은 언제나 내면에 선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발과 미발을 구분할 필요 없이[→ 외물의 자극과 무관하게] 선한 본성을 충실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양지의 확충]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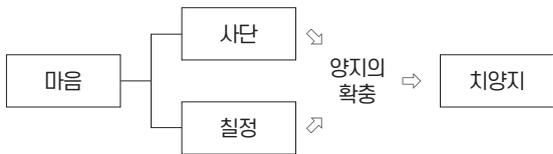
4) 본래 **확충**은 측은지심이나 수오지심 등 선한 도덕 감정인 **사단(四端)**의 발현을 막지 않고 충실히 드러나게 한다는 뜻이어서, 알맞게 조절하는 중절과는 다른 것이다.

- ▶ '확충'은 양명학이 도입한 개념이 아니다. 본래의 의미는 '사단'의 발현을 충실히 한다는 뜻이다.
- ▶ **주목** ▲ 이는 곧 마음이 발한 결과에는 '칠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있음을 내포한다. 즉 마음이 발한 '정'은 선한 감정인 '사단'과,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감정인 '칠정'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중 칠정에 대해서는 '성찰'이라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5) 왕수인은 사단과 칠정을 포함한 모든 마음에서 중절이 아니라 양지의 확충을 통해 치양지에 이르려 한 것이다.

- ▶ 반면 양명학의 '확충'은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는다. 애초에 마음이 발하거나, 발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 ▶ 이 지점에서 주자학과 다른 양명학의 마음 수양 방법이 드러난다. 주자학은 미발 시와 이발 시의 마음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별도의 수양 방법을 추구했지만, 왕수인은 미발과 이발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칠정'이든 그 자체로 선한 '사단'이든 관계없이 양지를 확충하는 한 가지 수양 방법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외물과 접촉한 뒤에도 선한 본성인 '양지'가 마음에 들어 있다고 보는 믿음에서 연유한다.
- ▶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확충'을 통해 '치양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자학에서 '함양'을 등한시했음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만큼, 이렇게 '확충'을 통하는 것은 내면의 덕성[→ 마음속의 이]을 키우는 '함양'과 맥락을 같이한다.



(나) 문단 1 화제 제시

1) 명나라에서 주자학을 비판하며 양명학이 등장한 후 이황, 기대승, 이이 등 16세기 조선의 **사림(士林)파** 사이에서도 양명학을 의식하며 **사단 칠정 논쟁**이 시작되었다.

맥락 짚기 ▲ 통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가)에서의 논의를 의식적으로 (나)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명나라에서 주자학을 비판하며 양명학이

등장했다는 점은 (가)의 요약이다. 이것이 조선의 사상적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의 초점일 것이다.

2) 이는 주로 주자학을 옹호하는 관점하에 벌어진 논쟁이었으나, 실제로는 조선만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함의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 ▶ '사단 칠정 논쟁'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옹호하고 양명학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러한 사상적 측면에서와 더불어 역사적 측면에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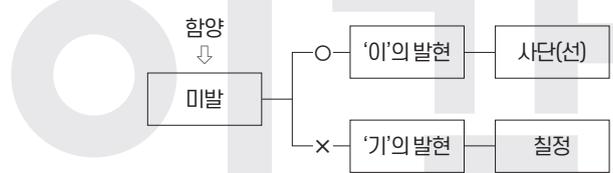
(나) 문단 2 사단 칠정 논쟁

1)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며 칠정은 만물의 질료인 '기(氣)'가 발한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선한 것이며, 칠정은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있다.

- ▶ '기'를 제외한 '이, 사단, 칠정'은 앞서 (가)에서 살핀 개념들이다. '이황'의 관점에 따르면 사단은 보편적 원리인 '이'가 발한 결과이지만 칠정은 그렇지 않다. 이는 왜 사단은 선하고 칠정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2) 이황은 그 발하는 시점부터 선과 악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선악을 본원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 수양 시에도 미발 시에 이루어지는 본원적인 선의 함양을 중시하였다.

- ▶ 감정의 선악은 '이발 시'에 곧바로 정해진다. '이'가 발하면 선하지만, '기'가 발하면 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그래서 '이황'은 수양의 초점을 '성찰'이 아니라 '함양'에 두었다(가)의 문단 2-3]. 미처 발하지 않은 '미발 시의 마음'인 '성'→ 내면의 덕성=마음속의 이]을 키움으로써, 마음이 발하면 '이'가 발현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목 ▲ 애당초 '사단 칠정 논쟁'은 주자학을 옹호하고 양명학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황'의 주장은 굳이 양명학을 도입하지 않아도 '주자학'의 틀 안에서 '함양'을 강조할 수 있음을, 즉 주자학도 여전히 충분히 성인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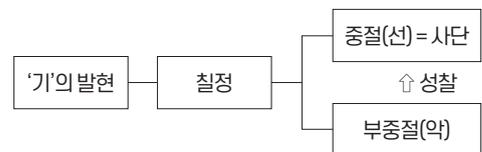
3) 이와 달리 **기대승**이나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와 '기'를 갖춘 것이지만 오로지 '기'를 통해 발하면서 그 결과로 선악이 판별된다고 보았다.

- ▶ 이번에는 사단과 칠정에 대한 '기대승'과 '이이'의 관점이다. 이들은 '사단' 역시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본다. '기'가 발했는데 그 결과가 선할 수도, 악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그들은 본원적인 차원에서 선악이 구별될 수 없다고 보고, **반성을 통해 악의 요소를 제거하도록 성찰하는 것을 수양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수양을 통해 중절에 이르면 칠정도 선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 ▶ 이렇게 선악은 '마음이 발한 결과'로서 판별되는 것이지, 이황의 주장처럼 '마음이 발하는 시점부터' 선악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조한 수양은 '성찰'이다. 발현된 '칠정'을 성찰을 통해 '중절의 상태'에 이르도록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참고 ▼ 기대승과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기'가 발한 칠정 중에서 그 결과가 선하게 된 것을 별도로 부르는 명칭일 뿐이다.



▶ 제시된 관점들을 구분하는 핵심적 차이는 '사단이 무엇이 발한 결과'인가에 있다.

	이항	기대승, 이이
사단	'이'가 발	'기'가 발
선악의 판별	'이'가 발하면 선하지만, '기'가 발하면 악할 수 있다.	'기'가 발한 결과에 따라 선악을 알 수 있다.
수양방법	함양[→ '기'가 아닌 '이'가 발현되게 함]	성찰[→ '기'의 발현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함]

(나) 문단 3 사단 칠정 논쟁의 역사적 배경

1) 칠정에 관한 논의는 조선 중기 연산군 비판의 과정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중종반정 후 사림파들의 논의에서는 군주의 통치 행위를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 군주의 칠정이 절도에 맞게 발하도록 하는 수양[→ 성찰], 즉 군주의 수신(修身)이 강조되었다.

맥락 짚기 ▶ 문단2에서 강조한 대로 사상적 측면에서 나아가 사단 칠정 논쟁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함의'를 다루고자 한다.

▶ 당시 사림파들은 연산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성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산군의 잘못된 통치의 배경에는, '마음이 발한 결과'로 드러난 칠정을 '중절'로 이끌기 위한 수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기대승과 이이가 중시한 바에 좀 더 가깝다[문단2-3].

2) 그러나 사림파의 이상은 선대로부터 정립된 조선의 객관적 규범인 조종성헌(祖宗成憲)의 준수를 강조한 훈구파의 논리에 밀렸고, 사림파가 대거 숙청되거나 유배를 가는 기묘사화로 실패에 이르렀다.

▶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군주의 수신을 강조한 '사림파'는 객관적 규범을 강조한 '훈구파'에 의해 밀려났다. 이는 '객관적 규범'이 우위를 점한 결과로, 양명학이 지적한 명나라의 문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가)의 문단2-1].

주목 ▲ 사림파는 당시의 '주자학의 문제 상황'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었음에도, 양명학을 옹호하는 대신에 여전히 주자학의 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 셈이다. 이는 문단2-2)의 이항의 입장에서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다만 기묘사화가 사실상 연산군의 폐정을 되살린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후대의 신료들은 당시의 사림인 기묘 사림의 정당성에 동조하였고, 이후 사림파들은 현실 정치에의 참여인 출사와 관련하여 사단 칠정 논쟁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 기묘사화는 당시 사림파의 패배였으나, 이는 오히려 사림파가 주장하는 바인 '군주의 수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사단 칠정 논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 사단 칠정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기묘사화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순서를 헛갈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읽자.

(나) 문단 4 사단 칠정 논쟁의 현실적 함의

1) 논쟁을 통해 선악이 본원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한 이항은 당시의 정계를 악에 가까운 부정적인 것으로 보면서 출사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 즉위한 선조에게 수양을 통해 군주의 덕과 정치의 중심을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 '출사'에 대한 이항의 주장이다. '이'가 발하면 선하고 '기'가 발하면 악할 수가 있어서 '선악은 본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인데[문단2-2], 이항은 본원적으로 악한 '정계'에 진출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 다만 함양을 중시한 만큼 당시에 즉위한 군주에게 그러한 수양을 강조했다.

2) 이와 달리 기대승과 이이는 기묘 사림을 계승하는 역할을 자임하며 출사를 택하였는데, 이는 선악이 본원적으로 나뉠 수 없고 선의 실

현이 구체적인 통치 행위나 실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 반면 기대승, 이이는 '출사'를 택했다. 사단이든 칠정이든 결국 '기'가 발한 것이고, 성찰을 통해 '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문단2-4].

주목 ▲ 기대승, 이이에 따르면 '선의 실현'은 선과 악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알맞게 조절하는 '성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즉 선악은 본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여 선의 결과를 낳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서, '출사'를 택한 것이다.

3) 다만 기대승이 조종성헌의 준수라는 [훈구파에] 현실적 논리를 수용한 반면, 이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 기묘사화를 이유로 기대승이 보다 현실적인 타협을 택했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4) 이처럼 조선에서의 사단 칠정 논쟁은 철학적 이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과 출사의 명분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련한 현실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 사단 칠정 논쟁의 의의를 정리하는 문장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ㄱ. 선악은 '기'의 맑고 흐림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본래부터 선한 마음 [→ 선한 본성, '성']을 찾아 이를 발휘하는 데에 몰두하면 인욕(人慾)도 천리(天理)로 간주될 위험이 생긴다.

▶ 선악의 판별을 '기'의 맑고 흐림에서 찾는 것은 '기대승'과 '이이'의 관점에 부합한다[(나)의 문단2-4]. 이들은 기본적으로 주자학의 틀 안에서 '도덕적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에 양명학을 비판하려는 입장이었다[(나)의 문단2-2].

∴ 선악을 '기'의 맑고 흐림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는 것은 마음이 발한 결과를 봐야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는 마음이 발하기 전에 선악을 본원적인 차이로서 구분할 수 없다고 본 '기대승'과 '이이'의 관점에 잘 부합한다. 따라서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성'의 발휘에 몰두하는 것은 '양명학'에 부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기'의 흐림을 고려하지 않아서, 칠정이 발현되었을 때 그것이 악일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ㄴ. 우선 군주의 덕이 성취된 뒤야 통치가 안정되고 현명한 신하가 임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신하는 정계에 나아가려 해도 수용되지 않았을 때에 물러나서 자중하는 것이지, 스스로 군주의 도덕성을 판단해서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출사의 필요성].

▶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되, 동시에 '출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선악은 본원적으로 나뉠 수 없으며, 성찰을 통한 선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기대승'과 '이이'의 관점에 부합한다[(나)의 문단4-2].

ㄷ. 마음은 모두 하늘에서 받은 것이니 비록 배우지 않고도 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예(禮)로 다스린 뒤에야 절도에 맞게 할 수 있다[→ '성찰'을 통해 '중절'에 이르러야 한다.]. 그중에서 희로애락은 더욱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 '성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다. '기대승'과 '이이'의 관점에 잘 부합하며, 물론 '주자학'과도 통하는 내용이다.

정방향 색인과 역방향 색인

지문 평가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 색인이 왜 필요한지, '정방향 색인'과 '역방향 색인'이 무엇이며 각각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지 파악하면 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읽어 낼 수 있도록 하자.

Keyword

기술 - 컴퓨터 과학 - 색인

크롤러,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 정방향 색인, 원형, 유사도, 역방향 색인

문단 ① 색인의 필요성

1) **크롤러**라 불리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생성, 수정, 삭제되는 수많은 웹 페이지 문서들을 무차별적으로 찾고, **검색 엔진**은 그 문서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둔다.

▶ '크롤러'에 의해 '검색 엔진'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인터넷에 존재하는 웹 페이지 문서들의 정보'를 저장해 둔다.

▶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만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새로운 문서들이 실시간으로 생성되고, 동시에 기존의 문서들이 실시간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이다.

2) **데이터베이스**는 각 문서를 구별하기 위한 'ID'와 '내용', '주소'로 구성되며, '주소'를 제외한 예시는 표와 같다.

ID	내용
1	갈색 여우와 갈색 강아지
2	귀여운 갈색 강아지
3	갈색 여우와 귀여운 강아지

맥락 읽기 ▶ 지문의 초반에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을 때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예시는 지문의 마지막까지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를 찾아 '주소'를 포함한 검색 결과를 출력**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서가 많고 [각 문서의] 내용이 길수록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 된다.

▶ 검색 엔진의 역할은 '입력된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들을 찾아서 검색 결과로 출력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각 문서의 '내용'에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이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서가 많을수록, 그리고 문서의 내용이 길수록' 그만큼 효율적인 검색이 어려워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든 검색 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다.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웹 사이트 문서들이 생성, 수정, 삭제되기 때문이다.

4) 그래서 검색 엔진은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정방향 색인**이나 **역방향 색인**을 만든다.

▶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색인'이다. 검색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는데, '색인'을 만드는 것을 통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 문제 상황 :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효율적
- 문제 원인 :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음
- 해결 방안 : 색인 ⇨ 어떻게?

문단 ② 정방향 색인

1) **정방향 색인**은 'ID', '내용'의 항목만 유지하되, 각 행에서의 '내용'을 단어의 열거 형태로 바꾼 목록이다.

▶ 기본적으로 '색인'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만든다[문단-4]]. 그런데 정방향 색인은 '주소' 항목이 빠진다는 것 외에는 데이터베이스와 항목이 거의 동일하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행에 '각 문서의 내용'이 담겼다면, 정방향 색인에는 각 행에 '각 문서의 내용을 단어의 열거 형태로 바꾼 것'이 담길 뿐이다.

2) 단, 단어를 **원형**으로 변형하여, 가령 '여우와'는 '여우'로, '귀여운'은 '귀엽다'로 바뀌되 각 원형은 중복을 피해 해당 행에 한 번만 기록한다.

▶ 주어진 '정방향 색인의 예시'를 문단-2)에 제시된 '데이터베이스의 예시'에 적용해야 한다. 문서 ID 3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D	내용
1	갈색, 여우, 강아지
2	귀엽다, 갈색, 강아지
3	갈색, 여우, 귀엽다, 강아지

▶ 각 문서의 내용을 '단어의 열거 형태'로 변형하여 저장할 때에는 '원형'으로 저장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복 저장은 배제된다. 문서 ID 1의 '갈색'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3) 검색어도 원형으로 바뀌어 검색되므로, 그렇게 해야 '귀여운'을 검색했을 때 '귀여워'가 포함된 문서도 결과로 산출되어 검색 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방향 색인에서 문서 ID 1의 내용은 {갈색, 여우, 강아지}가 되고, ID 2는 {귀엽다, 갈색, 강아지}가 된다.

▶ 본래 검색 엔진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한다[문단-3]]. 그런데 색인을 사용하면 색인을 검색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검색어가 '원형'으로 바뀐다는 것은 '원형'이 저장된 목록인 색인을 검색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그 '원형'이 포함된 문서를 정방향 색인에서 찾게 된다. 예를 들어 '갈색'이 검색어로 입력되면 검색 엔진은 '갈색'이 포함된 문서를 찾아야 한다.

▶ 이때 문서 ID 1은 {갈색, 여우, 강아지, 갈색}이어도 검색되고, {갈색, 여우, 강아지}이어도 검색된다. 따라서 굳이 중복하여 '원형'들을 저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목 ▶ 이렇게 '원형'으로 저장하면서 그로 인해 중복 저장이 배제되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을 때에 비해 '문서의 내용은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정방향 색인이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문단-3]].

- 문제 상황 :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효율적
- 문제 원인 :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음
- 해결 방안 : 정방향 색인 ⇨ 원형을 기준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문서의 '내용'을 짧게 만들어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함

4) 이렇듯 정방향 색인은 **각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두 문서 간에 공통된 원형이 많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는 기준에 따라 검색 결과 중에 유사도가 높은 것들을 묶어서 보여 주는

데에 활용된다. 또한 검색어가 여러 단어일 때에 그와 일치하는 원형이 많이 포함된 문서를 먼저 보여 주는 등 보다 유용한 검색 결과를 얻는 데에도 활용된다.

▶ 정방향 색인은 이렇게 양질의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이 잘 담기기 때문이다[→ 문서별 내용이 '원형'들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이 역시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효율적'이다[문단-3]. 이 부분에서 제시된 개념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두 문서의 공통된 원형의 개수 ↑ ⇒ 두 문서의 유사도 ↑

문단 3 역방향 색인

1) 이와 달리 **역방향 색인**은 검색이 단어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담지 못하더라도 단어의 원형에 따라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들을 기록해 둔 목록이다.

▶ '역방향 색인'이 '정방향 색인'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유의해야 한다. '정방향 색인'이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많이 담고 있다면[문단2-4], '역방향 색인'은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담지 않는다[→ 내용이 문서별로 저장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역방향 색인의 항목은 '원형'과 '값'이다. 개별 값은 (ID, 위치)의 형태로, 위치는 해당 ID의 문서에서 그 원형의 단어가 몇 번째에 있는지를 뜻하는 숫자이다. 예컨대 위의 표에서 원형이 '갈색'인 것의 값들은 ((1, 1), (1, 3), (2, 2), (3, 1))이고, '여우'인 것의 값들은 ((1, 2), (3, 2))이다.

▶ 정방향 색인의 항목은 'ID'와 '내용'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항목과 거의 같았다[문단2-1]. 그러나 역방향 색인은 항목부터 아예 다르다. 즉 정방향 색인은 문서에 따라 만들어진 목록이고, 역방향 색인은 '원형'에 따라 만들어진 목록이다.

▶ 이렇게 '원형'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서별 내용상의 특징'을 담지 않는 것이다[문단2-4]. 즉,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다.

ID	내용
1	갈색 여우와 갈색 강아지
2	귀여운 갈색 강아지
3	갈색 여우와 귀여운 강아지

원형	값
갈색	(1, 1), (1, 3), (2, 2), (3, 1)
여우	(1, 2), (3, 2)
강아지	(1, 4), (2, 3), (3, 4)
귀엽다	(2, 1),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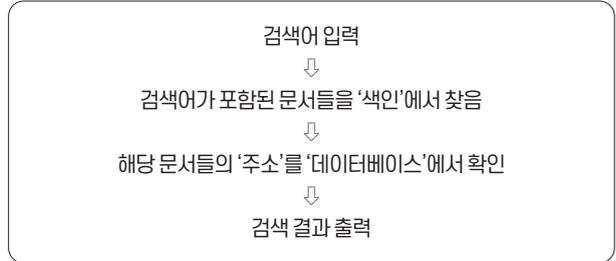
▶ 문서 ID 1에서 '갈색'이 (1, 1), (1, 3)으로 두 번 저장된 것을 통해 역방향 색인은 정방향 색인과 달리 중복 저장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문단 2-2].

3) 역방향 색인의 경우 항목의 원형들 중 검색어와 일치하는 것만을 찾아 해당 문서들을 출력하면 되므로 검색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 예를 들어 '귀여운'을 검색한다면, 그 원형 '귀엽다'가 포함된 문서들을 찾아서 출력해야 한다[→ '정방향 색인'과 마찬가지로 검색어를 '원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역방향 색인에서 '귀엽다'의 행을 찾아서, ID 2, ID 3인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물론 정방향 색인이든, 역방향 색인이든 색인을 직접 검색 결과로 출력할 수는 없다. 검색 결과의 출력에는 '주소'가 필요한데[문단-3], 두 색인 모두

'주소' 항목을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색인을 활용한 검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주목 ▶ 즉 역방향 색인은 검색이 '단어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단3-1], 검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는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행을[→ 모든 문서를] 검색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 검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 비효율적
- 문제 원인 :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대상으로 삼음
- 해결 방안 : 역방향 색인 ⇒ 검색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게 함

문단 4 색인의 구성과 재구성

1) 다만 역방향 색인을 만드는 과정은 정방향 색인의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방향 색인은 한 문서만 보고 단어의 중복 검사만 거쳐 원형들을 입력하면 되지만, ……

▶ 다만 '정방향 색인'이 만들기는 더 쉽다. 정방향 색인의 항목은 데이터베이스의 항목과 거의 동일해서[문단2-1], 데이터베이스에 한 문서가 추가되면 [→ 크롤러가 인터넷에서 새로운 웹 페이지 문서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그에 대응하는 'ID'의 문서를 찾아 그 행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된다.

2) …… 역방향 색인은 색인 전체에서 원형을 찾아가며 해당 원형의 행에 있는 값을 일일이 업데이트하면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반면 '역방향 색인'의 항목은 데이터베이스의 항목과는 완전히 다르다[문단 3-2].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한 문서가 추가되면, 해당 문서에 포함된 '원형'들을 색인 전체에서 하나씩 찾아서, 각 행의 값을 하나씩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역방향 색인을 만들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3) 또한 문서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여러 행에 걸쳐 대상 문서와 관련된 값들을 일일이 찾아가며 수정 내지 삭제하면서 값이 하나도 없는 원형의 행도 삭제해야 하는 등 역방향 색인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 이러한 번거로운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문서가 수정, 삭제되는[→ 인터넷에서 웹 페이지 문서가 수정, 삭제되고 이를 크롤러가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물론 문서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은 검색보다는 드문 일이므로, 색인을 재구성하는 손해보다 빨라진 검색 속도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 속도'가 빠른 데에서 얻는 이익이 확실하다. 인터넷 문서의 생성, 수정, 삭제에 비해 '검색'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상 입법예고

지문 평가

'행정상 입법예고'의 과정을 이해하되, 그것이 왜 '법률의 입법예고'에 비해 엄격하게 다루어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법학 지문에서 요구하는 여러 독해 요소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읽어 정보들이 제시되는 방식을 익혀 보자.

Keyword

사회 - 법학 - 입법예고

입법권, 행정입법, 법규명령, 자치법규,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법률의 입법예고, 흠결

문단 1 행정상 입법예고

1)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전문화된 행정 기능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기관에 의한 **행정입법** 역시 인정하고 있다. 전동 키보드 사용자의 증가로 야기되는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입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맥락 짚기 ▲ 법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어떠해야 하지만, 현실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요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어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원칙적으로 입법의 권한은 '국회'에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 기관'이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행정입법'이라 한다. 어떤 사회 문제에 대응하려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이 나서서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행정입법의 대상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국가 행정 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등의 **법규명령**과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한 조례 등의 **자치법규**로 구분된다.

▶ 행정입법의 대상은 주체에 따라 → 국가의 행정 기관인지, 지방의 행정 기관인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입법권이 없는 행정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 즉 법률의 위임 없이는 행정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여기서 '행정입법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입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 즉 법규명령과 자치법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면 된다.

3) 이 법령들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법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행정상 입법예고**라 한다.

▶ 지문의 초점을 '행정상 입법예고'로 좁히고 있다. 즉 행정입법의 대상인 '법규명령, 자치법규[→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입법예고'라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주목 ▲ 이때 입법예고는 '행정입법'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률'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행정입법은 어디까지나 '입법권의 예외적인 행사'로 이해해야 하는 만큼, '법률의 입법예고'와 '행정상 입법예고'는 구분될 것이다. 이를 충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한다.

문단 2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1) 1996년에 제정되고 그 2년 뒤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 기관은 행정입법의 내용이 확정, 공포되기 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행정상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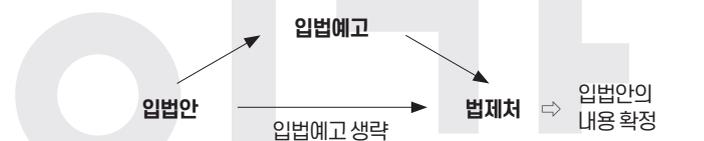
2) 다만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나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와 관련이 없을 때 등에 한해 이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생략이나 단축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예외적으로' 입법예고의 생략도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한 특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법령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와 관련이 없을 때
- ③ 법제처장과 협의하는 경우

3) 행정 기관은 마련한 입법안에 대해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하며 이는 예고의 생략 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생략 시에는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심사를 반려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 '법제처'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법제처는 입법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의 '심사'는 입법예고를 생략해도 이루어지고, 생략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 행정입법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먼저 행정 기관에 의해 '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반려하고, 행정 기관에 의해 예고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할 수도 있다.

▶ 행정 기관에 의해 '예고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 과정에서 ③에 의해 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4) 또한 입법예고 후에 예고 내용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행정 기관은 그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 입법예고가 처음부터 다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의 '중요한 변경'은 법령의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서, 국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 정도의 변경을 가리킨다.

▶ '중요한 변경'의 구체적인 예시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 변경'인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될 테니, 잘 파악해 두자.

5) **입법예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은 관보는 물론 법제처장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자치법규는 공보를 통해서 공고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입법안과 관련 있는 중앙 행정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등에는 예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만 한다.

▶ 입법예고의 방법이 열거되어 있다. 법규명령의 입법예고는 반드시 '관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반드시 '공보'를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애초에 입법예고의 목적이 '국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알리는 방법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문단 3 법률의 입법예고와의 차이 (1)

1) 국회도 **법률의 입법예고**를 하지만 행정상 입법예고와는 그 절차에 차이가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규 명령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특히 의약품 관련 사항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에 따라 60일 이상 공고해야 하지만, **법률은 10일 이상**으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 '법률의 입법예고'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비해 공고 기간이 짧다. 행정상 입법예고 중에서는 '자치법규'가 더 짧다.

	법률의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공고 기간	10일 이상	법규명령: 40일 이상 자치법규: 20일 이상 * 국민 건강 관련 사항: 60일 이상

▶ '자치법규'의 공고 기간이 '법규명령'에 비해 짧은 것은, 행정입법의 주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법규명령은 국가 기관에 의하는 만큼 그 파급 효과가, 지방 기관에 의한 자치법규에 비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교적 오래 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때 '법률의 입법예고'가 짧은 이유는 행정입법이 '예외적인 입법'인 것과 달리, 국회의 입법은 '원칙적인 입법'인 것과 관련이 깊을 것 같다(문단1-1).

2) 또한 행정상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이나 단체에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법률의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들 중 법률인의 체계와 적용 범위 그리고 형평성 침해 여부 등으로 보아 중요한 사항을 관련 위원회의 전문 위원이 선별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면 된다.

▶ '행정상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반면 '법률의 입법예고'에서는 모든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이 선별되어 처리된다(→ 맥락상 결과 통지도 불필요해 보인다). '법률의 입법예고'에 비해 '행정상 입법예고'가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또다시 알 수 있다.

	법률의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의견 처리	일부를 선별하여 위원회에 보고	원칙: 존중하여 처리, 결과 통지 예외: 처리하지 않아도 됨

3) 입법예고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행정 기관과 달리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행정상 입법예고'가 더 엄격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다. 국회의 입법은 그 과정이 '공개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그렇다면 반대로 '행정입법'은 그 과정이 '공개적'이지 않고, '다수결에 의한 합의 방식'을 따르지도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행정입법이 비교적 절차상의 한계가 있는 것은, 1)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행정입법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입법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단 4 법률의 입법예고와의 차이 (2)

1) 행정상 입법예고와 법률의 입법예고는 그 절차에 **흡결**이 있을 때의 사법 처리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 지문의 초점이 '입법예고의 절차상 흡결'로 옮겨지고 있다. 문단3의 설명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률의 입법예고'에서는 흡결에 대한 판단이 느슨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에서는 흡결에 대한 판단이 엄격할 것 같다.

2) 법률의 경우 입법예고 절차 외에도 소관 상임 위원회, 법제 사법 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입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

되고 논의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에 흡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법률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흡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률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예상대로의 흐름이다.

법률의 입법예고 절차상 흡결 ⇨ 효력 부인 ×

3) 하지만 행정입법 과정은 입법예고 외의 모든 절차가 비공개이므로 입법예고 절차에 흡결이 있는 경우에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 마찬가지로 예상대로의 흐름이다.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흡결'이 있다면, 해당 '법령의 효력'이 부인된다.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상 흡결 ⇨ 민주적 정당성 인정 ×
⇨ 효력 부인 ○

▶ '입법예고'는 법령의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다(문단2-1). 그렇다면 법령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설명은, 입법예고 이후에 해당 법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도, 사후적으로 '절차상 흡결'이 발견되면 이를 이유로 법원에 의해 시행 중인 법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당시의 입법예고 절차에 흡결이 있더라도 해당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 이후에 법원이 입법예고 절차에 흡결이 있는 행정입법을 무효로 판단한 사례는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 **주목** ▲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으니 잘 챙기고 가자. 행정절차법은 1998년에 시행되었는데(문단2-1), 그 이전에도 '입법예고'는 존재했다는 설명이다.

▶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의 행정상 입법예고의 경우, 절차상 '흡결'이 있어도 해당 법령의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에는 절차상 '흡결'을 이유로 해당 법령의 효력이 부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행정절차법을 통해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만큼, 입법예고가 '원칙적으로' 거처야만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㉗ 2021년에 지방 자치 단체 '갑'은 재단의 설립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A를 입법예고하여 30일간 공보에 공고했다. 아울러 재단 설립과 관련이 있는 중앙 기관에도 이를 통지했다. 이어서 '갑'은 제출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A에 속해 있는 조항 중 해당 지역의 국민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우려되는 조항 하나를 변경한 후, 관련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곧바로 A를 공포했다.

▶ 조례는 공고 기간이 '20일 이상'이어야 하고(문단3-1), 입법예고의 방법은 반드시 '공보'를 통해야만 한다(문단2-5). 또한 '갑'은 A의 내용을 관련 중앙 기관에도 통지했다. 여기까지는 절차상 '흡결'이 없다.

▶ A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나 보다. 그 과정에서 '갑'은 어떤 의견을 수용하여 '특정 조항을 변경'하고, 처리 결과도 통지했다(문단3-2). 여기까지도 절차상 '흡결'은 없다.

▶ **주목** ▲ 그런데 '곧바로' A를 공포했다는 점은 '흡결'에 해당한다. '국민의 권리의 무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면 입법예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의 효력은 법원에 의해 부인될 수 있다(문단4-3).

㉔ 1999년에 국가 행정 기관 ‘을’은 국민 건강을 위해 개발된 특정 백신의 빠른 공급을 위해 대통령령 B를 만들었다. ‘을’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B의 입법예고를 생략하려 했으나 법제처에서 거부했고 결국 법제처와의 협의 후 40일 동안 B의 입법안을 공고했다. 공고 기간 동안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을’은 전염병 확산 속도를 사유로 들어 곧바로 B를 공포했다.

▶ 대통령령의 경우 그것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공고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한다[문단3-1]. ‘을’은 ①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했는데, 법제처가 입법예고의 생략을 거부했고, 그 결과 60일보다는 짧은 40일 동안의 공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주목 ▲ B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을’은 이를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해당 법령을 공포했다. 원칙적으로 ‘행정상 입법예고’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는 만큼, 이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문단3-2].

∴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을’은 애초에 국민의 건강권을 이유로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상황이었고, ‘전염병 확산 속도’를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한 사유’로 간주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절차상 흠결로 보지 않을 당위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⑥번 선지는 적절하다.



[22~27] 현대시

(가) 「오월의 환희」

— 김현승 —

작품 평가

어렵게 생각하면 잘 알리지 않는 작품이다. 아주 쉽게, 화자가 계절의 아름다움에서 받은 인상을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고 읽어 보자.

제 1연

그늘,
 밝음을 너[→그늘]는 이렇게도 말하는구나,
 나도 기쁠 때는 눈물에 젖는다.

▶ 화자가 ‘그늘’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기쁨과 눈물의 관계는 마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렇게도’는 밝음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어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을 고려하면, ‘그늘’이 ‘밝음’을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에 함축된 뜻은, 곧 그늘로 인해 계절의 밝음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어지는 연에서도 이러한 발상이 유지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자.

제 2연

그늘,
 밝음에 너는 웃을 입혔구나,
 우리도 일일이 형상을 들어
 때로는 진리를 이야기한다.

▶ 제2연에 이어 ‘그늘’은 ‘밝음’을 더욱 부각한다. 제2연에서는 ‘나도’ 대신 ‘우리도’라고 하여, ‘그늘’에 대한 친근감과 동질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 3연

이 밝음, 이 빛은,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구나,
 그늘 — 너에게서……

▶ 화자는 ‘그늘’에게서 ‘채울 대로 가득히 채우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는’ ‘밝음’과 ‘빛’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 밝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밝음’, 즉 ‘그늘’이 ‘웃’을 입힌 ‘밝음’일 것이다. 그로 인해 ‘밝음’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의미이다.

제 4연

내 아버지의 집
 풍성한 대지의 원탁마다,
 그늘,
 오월의 새 술들 가득 부어라!

▶ 계절의 흥취가 드러난다. 화자는 ‘그늘’ 또한 절대자의 섭리 안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부각하는 요소로 바라보고 이에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 이 작품의 작가인 김현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내 아버지의 집’과 같은 표현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제 5연

이갈나무(= 소나무과에 속한 낙엽 교목) — 네 이름 아래
 나의 고단한 꿈을 한때나마 쉬어 가리니…….

▶ 화자가 주목한 ‘그늘’은 이갈나무 그늘이었다. 화자는 이 그늘에 위안과 휴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 「자경」

- 박인로 -

작품 평가

'자경(=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함)'이라는 제목에 나타나듯이 작가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타인을 깨우치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작품이다. 일상적이고 친숙한 비유를 통해 관념적 주제를 쉽게 표현하고 있다.

제 1수

명경(明鏡)에 티 끼거든 값 주고 닦을 줄

→ 맑은 거울에 먼지가 끼면 값을 주고 닦을 줄을

아이 어른 없이 다 미쳐 알건마는

→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지만

▶ 거울이 더러워지면 값을 주고서라도 닦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알건마는'이라는 표현에서, 종장에는 초종장과 어긋나는 상황이 나오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 여기서의 '명경'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수입되어 널리 통용되기 전, 청동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울이다. 청동 거울의 표면을 긁고 평평하게 갈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거울 닦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겼던 것이다.

값없이 닦을 명덕(明德, 밝은 덕)을 닦을 줄을 모르는구나

→ 값없이도 닦을 수 있는 명덕은 닦을 줄을 모르는구나.

▶ 종장의 주어는 화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다. 화자는 사람들이 더러워진 자기 마음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다. <제1수>에서는 덕을 닦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 2수

성의관(誠意關,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문) 돌아들어 팔덕문(八德門, 팔덕을 갖춘 문. 팔덕은 유교의 윤리 강령을 말함) 바라보니

→ 성의관을 돌아들어 가서 팔덕문을 바라보니

크나큰 한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 크나큰 한길이 넓고도 곧게 뻗어 있건마는

▶ '성의관'을 지나 '팔덕문'으로 이어지는 '크나큰 한길'은 넓을 뿐 아니라 곧기까지 해서 아무런 장애가 없으며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성의관]은 수양의 시작일 것이고, '여덟 가지 덕을 갖추는 것'→ 팔덕문]은 수양의 목표일 것이다. 이것은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여 덕을 닦아 나가다 보면 '팔덕'→ 유교의 윤리 강령]을 갖추는 데 이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찌하여 진일(盡日, 하루 종일) 행인이 오도 가도 아닌 게오

→ 어찌하여 하루 종일 [이 길을 지나는] 행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인가?

▶ '행인'은 '크나큰 한길'을 걷는 사람, 곧 덕을 닦는 사람을 의미할 텐데,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에 아무도 없다. 이는 '성의관'을 통과한 사람, 즉 덕을 닦기 위해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비유를 통해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내며 <제2수> 역시 덕을 닦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 3수

구인산(九仞山, 큰 덕으로 비유되는 가상의 산) 긴 솔 베어 제세주(濟世舟,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 구인산에 있는 큰 소나무를 베어 세상을 구할 배를 만들어서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려 하였더니

→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게 해주려고 하였더니

▶ '구인산'에 난 커다란 소나무[→ 큰 덕]로 세상을 구할 배를 만들어서 '길 잃은 행인'들[→ 덕을 모르고 세상을 방황하는 자들]이 강[→ 세상을 건널 수 있게 해주려고 했다]는 것은, 화자가 꾸준하고 성실히 수양해서 큰 덕을 쌓는 목적이 개인적 인격을 완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까지 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사공도 변변치 못하여 모강두(暮江頭, 저무는 강가)에 버렸구나

→ 사공도 변변치 못하여 저물어 가는 강가에 [배를] 버렸구나. / [배가] 버려졌구나.

▶ '사공'이 '변변치 못하'다는 것은 화자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고, '배'가 '모강두'에 버려져 있다는 것은 화자가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뜻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제3수>에서 화자는 세상을 위해 뜻을 펼치고자 했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탄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상에 쓰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감